

보도자료

2023년 3월 27일 인천 2023-12호
이 자료는 3월 28(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7일(월) 배포시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3년 1/4분기 중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 보고서(2023.3월호)』 발간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3년 1/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전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생산은 소폭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 수준

— 제조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소폭 감소, 서비스업은 운수업, 도소매업 등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한편 **한국은행(본부)**은 15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지역경제보고서(2023.3월호)**」* 를 **발간**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

○ 2023년 1/4분기 중 지역경제는 글로벌 경기부진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이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 및 향후 과제”도 **수록**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현장리포트(“인천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 및 향후 과제”)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이은경 과장, 김민우 과장, 홍창덕 조사역

Tel: 032-880-0032, 0033, 0034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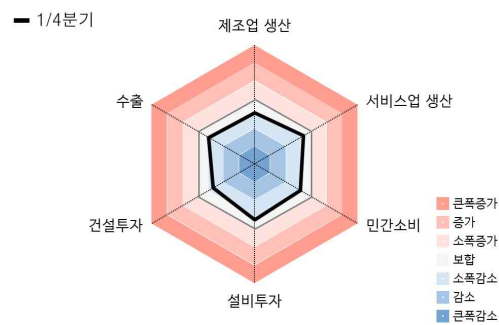
(1) 개 황

인천지역 경기 보합

2023년 1/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2022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 건설투자, 수출은 소폭 감소, 설비투자는 보합 수준을 보였다.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 4/4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주택매매가격 하락폭은 축소, 전세가격의 하락폭은 보합을 나타내었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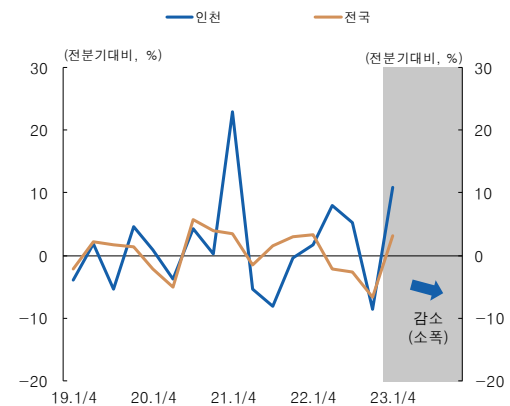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 산

제조업 생산 소폭 감소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정제가 큰 폭 증가하고 철강, 자동차 및 트레일러, 의약품은 보합 수준을 보였으나, 전자부품·컴퓨터·영상기 큰 폭 감소, 식료품이 감소하고 목재·나무, 기계·장비는 소폭 감소하였다.

제조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그래프는 1월 실적치(잠정)
자료: 통계청

석유화학·정제는 전년 4/4분기에 실시한 대규모 정기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1/4분기 생산이 큰 폭 증가하였다. 철강은 전방산업인 건설 업황이 악화되었으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¹⁾하여 전분기와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반도체 수급 부족이 완화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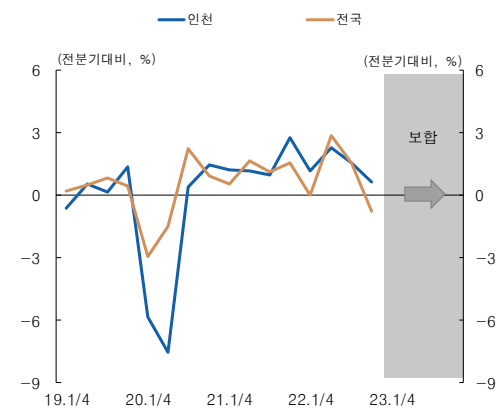
따라 생산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높은 시장점유율²⁾을 이어가고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수주가 줄어들고, 반도체 재고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전분기대비 큰 폭 감소하였다. 식료품은 내수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였다. 목재·나무는 전방산업인 건설과 주택시장 경기 악화로 인해 생산이 저조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전분기대비 생산 감소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료품과 기계·장비는 생산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생산 호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의약품 역시 신제품 승인·출시를 계획하는 등 성장세³⁾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정제, 철강 역시 전분기와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목재·나무는 전방산업 경기 악화로 인한 생산량 감산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보합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모두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운수업은 해외여행 확대 추세가 이어지면서 항공 운항편수 및 여객이 증가⁴⁾하였으나 해운 벌크화물 및 항공 화물 물동량 부진⁵⁾이 심화됨에 따라 보합세를 보였다. 도소매업은 소매유통업체 경기가 소비심리 위축,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폭 악화⁶⁾되었지만, 백화점에서 리빙 상품군 프로모션 등으로 매출액이 소폭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숙박·음식점업은 1/4분기 매출이 코로나 일상 회복으로 증가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심리 위

1) 동국제강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인 'steelshop'을 개편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였다. 2022년 12월 모바일 앱도 출시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2) 셀트리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22.3/4분기 31.7% → 4/4분기 32.6%), 혈액암 치료제인 트루시마(22.3/4분기 27.6% → 4/4분기 29.1%)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월 27일에 2023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12.5% 증가한 3조 3,765억원으로 전망된다고 공시하였다.
 4) 인천공항의 2023년 1~2월 중 운항편수는 월평균 21,911편, 여객은 월평균 378.8만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09.6%, 1,021.0% 증가하여 2022년 4/4분기 월평균(+62.0%, +668.7%)대비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5) 2023년 1월중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9.2% 감소(2022년 4/4분기 -2.1%), 인천항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16.0% 감소(2022년 4/4분기 -12.2%), 인천공항 화물물동량은 24.7% 감소(2022년 4/4분기 -18.4%)하면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6) 인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23년 1/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는 55로 집계되면서 2022년 4/4분기(58)에 비해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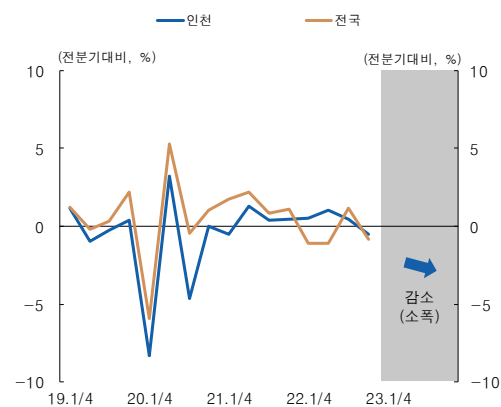
축으로 백화점 해외 명품 상품군 신장세가 둔화 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숙박·음식점업 이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운수업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수 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4/4분기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재화 소비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공공요금 물가 상승폭 확대⁷⁾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저하⁸⁾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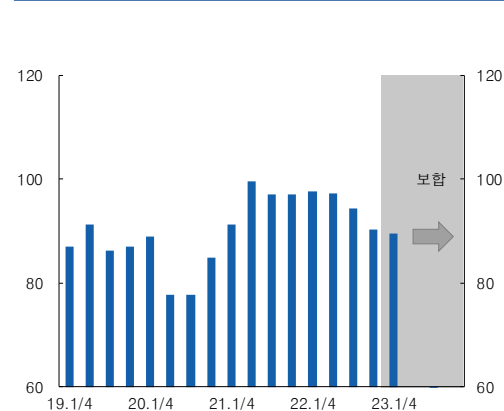
재 모두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대표 품목은 내구재 중 자동차⁹⁾, 준내구재 중 의복, 비내구재 중 연료 등이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구매력 저하 등이 지속됨에 따라 1/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보합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석유화학·정제는 전년 4/4분기 정기보수가 완료되면서 큰 폭 감소하였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철강, 식

7) 1~2월 중 인천지역의 전기·가스·수도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9.2% 증가하여 전년 4/4분기 증감률 24.4%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8)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3년 1~2월 평균 89.3으로 2022년 4/4분기 평균 90.4에 비해 1.1p 하락하였다.
 9) 1~2월 중 인천지역의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24,818대(월평균 12,409대)로 전년 4/4분기 44,368대(월평균 14,789대)에 비해 월평균 기준 16.1%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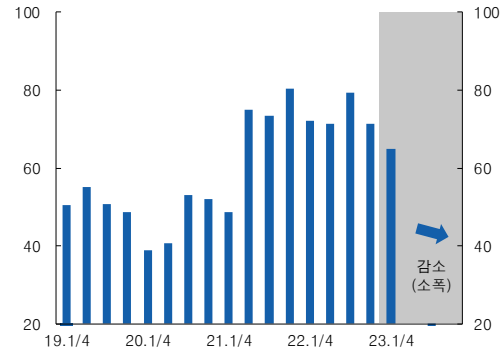
료품, 도소매업도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목재·나무, 의약품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기계·장비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도소매업¹⁰⁾, 기계장비는 설비투자액을 전분기대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해외 판매 확대¹¹⁾를 위해 설비투자액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철강, 석유화학·정제는 전분기 설비투자 규모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숙박업은 매출 증대에 따라 설비투자를 지속할 계획이지만, 전분기대비 규모는 소폭 축소될 전망이다. 목재·나무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설비투자를 줄일 계획이다.

건설투자 소폭 감소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 4/4분기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물건설의 경우 주거용, 공업용 건물 착공면적은 늘어났으나, 상업용 건물 착공면적은 감소¹²⁾하였다. 토목은 감소¹³⁾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월 및 2월 실적치 평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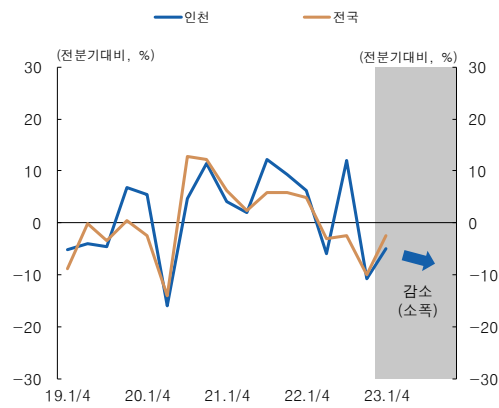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택 미분양 물량 확대¹⁴⁾ 및 건설수주액 부진¹⁵⁾에 따라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소폭 감소

1/4분기 중 수출(일평균)¹⁶⁾은 전년 4/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 감소하였다.

10) 롯데백화점 인천점은 점포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다.
 11) 셀트리온은 2023년중 미국시장에 베그젤마(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SC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12) 1월 중 인천지역 건물 착공면적은 전년 4/4분기(월평균)대비 4.5% 증가하였다.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6.8%), 공업용(+248.5%)은 증가하였으나, 상업용(-34.3%)은 감소하였다.
 13) 1월 중 인천지역 토목건설 건설수주액은 전년 4/4분기(월평균)대비 71.1% 감소하였다.
 14)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은 2022년 8월부터 크게 늘어났으며, 2022년 8월~2023년 1월 중 전년동기대비 5.1배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15) 1월 중 인천지역 건설수주액은 전년 4/4분기(월평균)대비 61.1% 감소하였다.
 16) 1~2월 중 인천지역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농약 포함), 철강판, 무선통신기기로 일평균 수출 기준 전년 4/4분기 대비 의약품(+30.1%), 철강판(+32.3%), 무선통신기기(+1.7%) 수출은 증가하고, 반도체(-30.0%), 자동차(-12.1%) 수출은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일평균 수출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월~2월 실적치(잠정)의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및 케미컬 사업 성장으로 전분기대비 수출이 증가하였다. 철강은 특히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의 수출¹⁷⁾이 큰 폭 증가했다. 석유화학·정제¹⁸⁾는 전년도 4/4분기 정기 대보수 이후 가동량을 회복하여 큰 폭 증가하였다. 반도체 수출은 소비자용 IT인 모바일, PC, 노트북 등의 수요 둔화¹⁹⁾에 따라 큰 폭 감소하였다. 자동차는 신차 주력 수출지인 미국으로의 수출²⁰⁾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 수출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철강, 의약품 등은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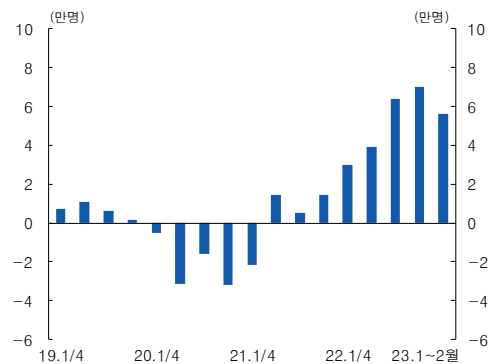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1~2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5.6만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전년 4/4분기(월평균 7.0만명 증가)대비 축소되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건설업에서 증가폭이 확대²¹⁾되고,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에서 감소로 전환²²⁾,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에서 증가폭이 축소²³⁾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이 모두 축소²⁴⁾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17) 1~2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의 튀르키예로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2022년 4/4분기대비 135.3% 증가하였고, 그 외 주요 수출국인 미국(+22.9%), 멕시코(+26.0%)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8) 1~2월 중 인천지역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전년 4/4분기대비 38.7%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9) 스마트폰은 재고 수준이 높아 수요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C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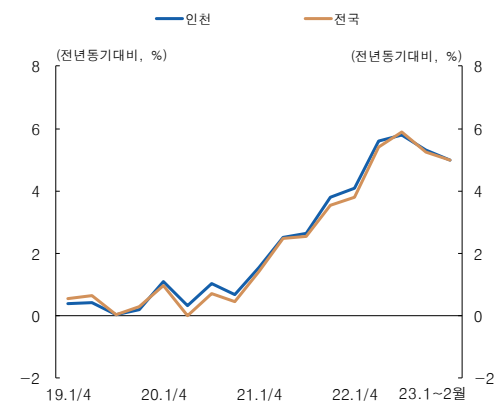
20) 1~2월 중 인천지역 신차의 미국으로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전년 4/4분기대비 18.9%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세 둔화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월평균)은 전년동기대비 5.0%로 전년 4/4분기(5.3%)의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24.4% → 29.2%)의 물가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나, 상품(6.5% → 6.4%), 서비스(4.2% → 3.7%)에서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 전분기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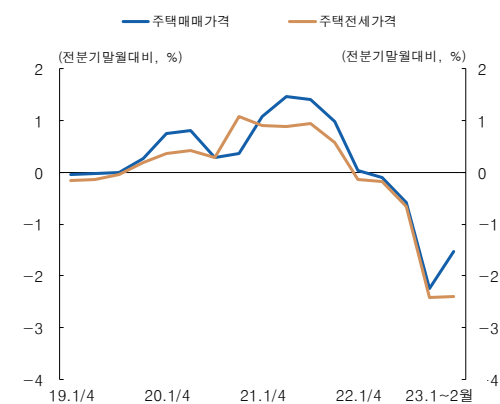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하락폭 축소 및 전세가격 하락폭 보합

1~2월 중 주택매매가격²⁵⁾은 전분기말월대비 1.53% 하락하면서 전년 4/4분기(-2.25%)보다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주택전세가격²⁶⁾은 전분기말월대비 1~2월 중 2.40% 하락하며 전년 4/4분기(-2.41%)와 하락폭이 비슷하였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²⁷⁾은 모두 하락했지만,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인 연수구, 부평구, 중구 등에서 하락폭이 컸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도 모두 하락하였는데 연수구, 부평구, 중구 등 신도시와 대단지 밀집지역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21) 1~2월 중 인천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4만명, 0.5만명 증가하여 전년 4/4분기(+1.0만명, +0.2만명)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 22) 1~2월 중 인천지역 제조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7만명, 0.5만명 감소하여, 전년 4/4분기(+0.1만명, +0.1만명)대비 감소로 전환되었다.
- 23) 1~2월 중 인천지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5.8만명 증가하여, 전년 4/4분기(+5.9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24) 1~2월 중 인천지역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2.6만명, 3.0만명 증가하여, 전년 4/4분기(+3.2만명, +3.8만명)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 25) 1~2월 중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하락률(-1.53%)은 전국(-1.31%)보다 크고 수도권(-1.6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26) 1~2월 중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 하락률(-2.40%)은 전국(-2.02%)보다 크고 수도권(-2.82%)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27) 전분기말월대비 1~2월 주택매매가격은 연수구, 부평구, 중구에서 각각 2.37%, 1.74%, 1.66% 감소했고, 같은 기간 주택전세가격은 연수구, 부평구, 중구에서 각각 3.71%, 2.82%, 2.79% 하락했다.

인천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 및 향후 과제

2.1일 인천광역시시는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대(對)시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마스터 플랜 용역 개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항만 노후화 및 대체 신항 개발, 난개발 누적 등으로 인해 낙후된 인천 원(原)도심²⁸⁾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개발사업이다.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 및 중구 지역을 살펴보면, 동구의 경우 구내 총 9개 구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률(-3.3%)을 기록²⁹⁾하였다. 중구의 경우 인구 유입이 활발한 영종국제도시가 포함되어 순유출률 폭이 작았으나(-0.5%) 영종도 이외에는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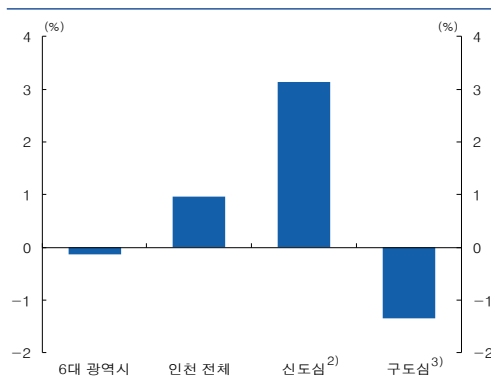
지역내 불균형 발전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민선8기 인천광역시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제1순위 공약(선거관리위원회 신고 기준)으로 원도심 혁신을 제시하였고, 그 일환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인천 원도심, 내항 및 신도심¹⁾



주: 1) 원도심 대비 신도심(송도, 영종, 청라도) 표기
자료: 보도자료 종합

인천 주요 지역 등 인구 순이동¹⁾



주: 1) 2021년말 주민등록인구 대비 2022년 순이동인구(전입-전출)
2) 연수구(송도) 및 서구(청라), 3) 동구 및 중구
자료: 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23.1월)

‘제물포 르네상스’는 원도심 개발정책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을 두 중심축으로 한 4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원도심 개발정책으로서 낙후된 동인천역과 인천역 일대를 재정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통체계 정비 목표치는 원도심 지역 전역에서 대중교통을 15분 이내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내항개발은 내항 제1~8부두중 노후화 정

28) 인천 원도심은 일반적으로 19세기말 개항 당시부터 20세기말까지 인천의 중심지로 기능하였던 중구(영종 제외), 동구 및 미추홀구 일부 지역을 가리킨다. 이에 대비되는 신도심은 최근 송도, 청라, 영종 일대로 지칭된다.

29) 2021년말 주민등록인구 대비 2022년 순이동인구(전입-전출) 비율 기준(통계청,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23.1월))

도가 심각하고 기능이 타항으로 이전된³⁰⁾ 제1 및 8부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에 역사·해양관광 중심의 ‘하버시티’를 건설하는 것이 내항 개발의 주된 계획이다. 인천의 근대 개항기를 배경으로 한 문화체험시설, 아쿠아리움 등을 유치하고 주변 월미권역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및 항공우주분야 등 미래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³¹⁾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외 셋째는 문화관광 산업 개발이다. 19세기 개항기 당시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한 문화공간인 ‘상상 플랫폼’ 등 역사·문화를 활용함과 동시에 해양 수변 공간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넷째,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존 중고차 수출산업을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을 통해 첨단화하고, 청년 창업에 특성화하여 신규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물포 르네상스 4대 과제

과제	내용
① 원도심	·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체계 재구축으로 원도심 생활환경을 개선
② 내항개발	· 재개발 사업 및 거점시설 건설 조기 추진
③ 문화관광	·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④ 산업경제	· 원도심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자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23.2월)

이와 같은 중장기 4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물포 르네상스 기획단’ 확대 개편 및 기본조례 제정 등 실행 가능한 제도적 기반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빠르게 마련할 예정이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그간 누적되어온 지역내 불균형 발전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신도심 지역이 빠르게 성장한 반면 원도심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번 개발을 통해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인구 유입과 함께 지역 인프라 추가 개선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제물포 르네상스’는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사업 초기단계이다. 핵심사업인 내항 개발의 경우 ‘25년에 착공하여 ’30년 이후 완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기 프로젝트로서 향후 변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내항일 원마스터플랜(‘18년), 동인천역전2030(‘19년) 등 원도심 개발 사업이 기획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례에 비추어보았을 때 금번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우선 핵심사업인 내항재개발과 관련하여 토지소유권, 사업주도권 등에 대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내항 재개발 사업 범위를 1·8부두로 우선 한정하는 등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유사사업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인천의 과제인 지역내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 재원 마련, 토지소유권 확보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협의 도출 등 여러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기반한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30) 예를 들어 인천내항 제1·8부두와 달리 제4부두의 경우 중고차 수출 특화 부두로 기능하고 있다.

31) 경제자유구역은 '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총 9개 구역에 대해 지정되어 있다.